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7057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푼다.....	4
1023 은혜란 무엇인가?.....	5
6831 무엇이 은혜의 수단인가?.....	6
4813 은혜의 분량은 제한이 없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다.....	8
4949 은혜의 효력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9
1937 의지와 은혜. (빌립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니" 에 대한 이의 제기 ).....	10
1939 1937 번 계시에 대한 보충. 은혜.....	11
2468 의지와 은혜. (첫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22
8969 의지가 먼저인가? 아니면 은혜가 먼저인가?.....	23
6096 이 땅의 과정은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께 귀환.....	24
3266 영적인 거듭남. 은혜.....	25
5248 내적인 깨달음의 은혜.....	27
8867 넘치게 큰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음성이다.....	28
5104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효력이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29
7919 은혜의 선물의 의미. 능력을 제공하는 일.....	31
2101 구속역사의 은혜.....	32
3445 "나를 믿는 사람은..." 구속역사의 은혜.....	34
7033 가장 큰 구속사역의 은혜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일이다.....	35
6383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라.....	37
5803 사울의 경험. 은혜.....	38
2488 삶의 어려움은 은혜이다.....	39
4117 큰 고난과 큰 은혜.....	40
3169 일찍이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은혜.....	41
2450 저세상에서 은혜를 얻는 일. 빛의 영역에서 하는 일.....	42
4887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한 혼들의 후회.....	43
2369 집행 유예 종료. 심한 고통.....	44
4966 믿음의 힘은 은혜이지만 의지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45
7821 하나님은 대적자의 역사에 대항해 강한 은혜를 사용한다.....	46
4715 특별한 은혜의 선물은 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48
2136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을 잘못 활용할 위험.....	49
1807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해야만 한다. 무작위로 역사하지 않는다. (예정).....	50

3714 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	51
4956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과 어두움.....	52
8752 은혜로 구원에 이룸.....	54
7230 은혜를 활용하는 일.....	55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푼다.

B.D. No. 7057

1958년 3월 6일

**내** 영은 연약한 자 안에서 강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도 된다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자신을 연약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깨닫고 내 앞에서 고백하고 나에게 내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는 심장에서 오는 겸손에 대한 일이다.

내 영은 단지 진실로 겸손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전적으로 자신을 나에게 드리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선물할지를 나에게 맡긴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충만한 은혜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 은혜를 활용할 것이다. 그는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사랑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심장 안에 나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이미 근본성향이 교만인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그에게는 유일하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 편에서 이런 갈망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가 되길 추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영은 내 대적자의 성향인 교만이 있는 곳에서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그런 곳에서 역사한다면, 내가 그와 협력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있기 전에 그가 겸손하게 돼야만 한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진정한 겸손은 외적인 자세를 통해 표정을 통해 또는 이웃에 대한 외적인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단지 유일하게 심장의 겸손을 보고 내적으로 연약함과 죄악성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본다. 즉 한때 타락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본다.

모든 존재들은 실제 한때 빛나는 아름다운 상태에서 그들의 창조주인 나 자신을 기뻐했던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태로 머물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성품이 반대로 바뀌었고 그들은 이 상태에서 내 눈 앞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이 먼 상태에서 나에게 다시 저항했다. 왜냐면 그들이 내 대적자의 성품인 교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그의 교만을 벗고 가장 깊은 겸손으로 변화되고 자신의 타락과 나와 떨어진 아주 먼 거리를 깨닫고 나를 갈망하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 두 손을 펼칠 때까지 나에게 귀환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 존재를 나에게 끌어드릴 것이다. 왜냐면 존재가 그의 겸손으로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하게 자녀를 자신의 심장으로 끌어 드리고 이제 자신의 사랑의 증거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아버지는 이제 다시 자신의 영을 부어줄 수 있게 된다.

영의 능력이 이제 볼 수 있게 나타날 것이다.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지 존재가 원래 초기에 소유했던 은사가 없이는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은사를 나타낼 것이고 사람은 빛과 능력이 충만할 것이다. 다시 말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일반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의 하나님과 분명한 연결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이 겸손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하나가 겸손이기 때문이다. 이 겸손이 단지 타락을 통해 반대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로 너희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하기를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항상 진정한 겸손을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아직 교만의 불씨 하나라도 자신 안에 가진 사람은 내 대적자로부터 이미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적자의 지속적인 노력은 그를 계속해 자신의 사슬로 묶어 두려는 일이 될 것이다.

세상이 대적자에게 그의 일을 할 많은 기회를 제공해 사람들이 항상 더욱 명성과 명예를 추구하고 작고 낮은 모든 것을 내려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가 대적자에게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너희는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너희 자신을 진실로 올바른 겸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내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강하게 되기 원하면,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을 의식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다.

아멘

은혜란 무엇인가?

B.D. No. 1023

1939년 7월 25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그러면 삶이 너희에게 성취를 줄 것이다. 너희 혼과 영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은, 비록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많은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게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육체의 행복을 위해 육체에게 부족한 것을 대신해 혼을 위해 몇 배로 제공받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아는 일은 말할 수 없게 가치가 큰 일이다. 주님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을 그의 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킨다. 모든 은혜의 공급은 사람의 혼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신의 영과 하나가 되는 목표에 가까이 가게 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말할 수 없게 가난한가!

영적인 관점에서 그의 삶은 헛된 삶이다. 그는 항상 같은 수준으로 이 땅에서 살고, 절대로 높은 곳으로 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모든 자신의 책임을 벗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이 땅의 자녀가 주님을 향한 그의 의지를 고백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기 때문에,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으로 "나를 받아 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저는 단지 주님의 인도를 받기만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때부터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혼자 가게 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는 모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이 땅의 자녀에게 부족한 올바른 깨달음과, 주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능력을 주는 일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은 그의 육체도 육체가 받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육체가 혼의 갈망을 따르게 될 것이다.

혼의 갈망은 더 이상 세상적인 재물과 행복한 삶을 향하지 않고, 유일하게 단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가 되는 일로 향할 것이다. 이런 역사는 긴밀한 기도로 하늘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간청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서 관찰해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이다. 은혜는 너희에게 전해지는, 너희가 위를 향하게 알려주는 모든 생각이다. 은혜는 너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모든 체험이다. 은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과 연합이다. 은혜는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는 모든 말씀이다. 너희가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희는 쉬지 않고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희에게 측량할 수 없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를 향한 너희의 의지가 스스로 은혜를 구해야 만한다. 너희의 심장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하늘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구해야 만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마지막에 가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무엇이 은혜의 수단인가?

B.D. No. 6831

1957년 5월 15일

**나**는 전적으로 총만하게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내 은혜를 부어준다. 나는 종말 전에 단지 너희가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종말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위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어떠한 일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전적으로 눈이 먼 가운데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너희가 끔찍한 운명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너희가 돌아서게 해주기를 원하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보장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항상 또 다시 너희의 의지에 역사하여 너희 스스로 목표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더 늦기 전에 너희를 돌리키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너희의 의지에 유익하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모든 수단은 은혜들이고 너희가 벌어드리지 않는 선물들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아직 나에게 저항하고 너희가 속고 있는 상태를 내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너희를 돕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 충만한 은혜가 항상 더 강하게 너희 사람들에게 부여될 것이다. 사람들은 상황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해 자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세상적인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운명적으로 나에게 도피하도록 재촉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그의 심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의 의지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내 은혜의 선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나를 멀리 떠나 있고 내가 그들의 생각에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아주 많은 암시를 주고 비록 몇몇의 사람들이 직접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웃의 운명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이웃의 운명이 죽음 전에 자신의 실제 삶의 목적대로 살도록 그의 의지에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삶의 목적을 헤아려 보려고 할 것이고 이는 이미 그가 은혜를 자신의 구원을 위해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혜를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그들은 자주 은혜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단지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은혜가 단지 사람들을 성장하게 돕기 위해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들이 스스로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로써 나에게 향한 의지를 알리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교회의 관습이나 형식을 그들을 축복되게 되게 돕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내 사랑을 넘치게 선물해주는 은혜의 선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성품의 변화를 종말 전에 완성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진지한 의지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결정하기 원한다. 나는 단지 너희가 이 전에 사랑이 없이 갔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모든 은혜의 수단과 위험과 처량함과 질병과 염려와 모든 종류의 불행한 일들은 단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은 너희가 항상 너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일이고 너희가 나와 연결을 먼저 의지적으로 구하고 사랑의 삶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은혜의 수단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고 은혜의 수단이 너희에 의해 활용 된다. 그러면 너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너희의 길은 더 이상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너희가 올바른 목표인 단지 사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주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쓸모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너희를 나와 연결을 시키려고 추구하면, 너희 안에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염려는 항상 아직 세상에 내 대적자에 묶여 있는 너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너희가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할 수 있으면, 나는 목표에 도달한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에 가서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큰 위험을 벗어난다. 아직 너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단지 너희의 의지의 변화를 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 의지가 내 대적자를 떠나 나에게 향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은혜의 분량은 제한이 없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다.

B.D. No. 4813  
1950년 1월 5일

**너**희에게 언제든지 너희가 영접하는 만큼, 다시 말해 너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만큼의 은혜의 분량이 공급된다. 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은혜를 영접하고, 은혜의 흐름에 자신을 열고, 은혜 안에 잠기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가 얼마나 자주 나의 은혜 흐름의 물결에 쌓여 있었느냐? 내가 얼마나 자주 나의 충만한 은혜를 이 땅에 부어 주었느냐? 모두가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은혜의 선물은 가장 큰 성공을 주는 나의 은혜의 선물로 단지 희귀하게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의 성장 상태가 아주 서로 다르다. 때문에 아주 많은 성장 정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낮은 차원에 머무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최고로 높이 성장한다. 왜냐면 그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들에게 항상 더 많은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나의 모든 피조물들을 감싼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게 주지 않고, 모두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단지 적은 수의 사람이 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나의 은혜로 자신을 부유하게 만든다. 왜냐면 그들은 은혜를 받는 일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고, 이로써 또한 은혜가 역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준다.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러면 사람의 의지가 먼저 나의 선물을 영접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전적으로 효과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실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제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공급이 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공급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들이 나의 선택을 받아, 큰 일을 하도록 정함 받았다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준다는 결론은 올바른 결론이 아니다.

그런 사람의 의지가 나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자세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준 은혜의 원천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게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이 정한 영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면 나의 은혜를 받는 일은 내가 없이는 어떤 일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고, 나에게 모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항상 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나의 은혜 아래 살고, 나는 그를 기뻐하며 바라본다. 왜냐면 그의 생각이 내가 그의 가장 신실한 친구이고,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주는 아버지임을 의식하는 가운데 자주 나를 구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은혜가 없이 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나는 항상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면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이 내가 축복되게 해주기 원하는 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기간 동안



버림받을 것이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나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은혜의 효력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B.D. No. 4949

1950년 8월 12일

**너**희가 어느 정도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진지하게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갈망이 나에게 향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진리로서 너희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인간의 이성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너희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 너희가 나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내가 내 영을 통해 말할 수 있도록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면, 나는 또한 설명해줄 것이다.

나는 내 은혜를 통해 너희를 나에게 이끌기를 원한다. 왜냐면 너희는 내 은혜가 없이는 나에게 가는 길을 찾을 수 없고, 내 은혜가 없이는 너희에게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흐름이 너희에게 부어져야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줘야만 한다. 내가 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나로부터 동등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내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은혜의 분량을 정한다.

내가 의지의 자유를 가진 너희 사람들에게 합격해야 할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영향을 미친다면, 너희를 향한 은혜는 즉시 방해받지 않고 역사했을 것이고, 이런 일은 내 피조물에게 강요하는 일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그들을 그들이 한때 가졌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다시 만들어야만 하고, 내 사랑이 모든 피조물이 가능한한 최단 시간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보장해주었을 것이다. 왜냐면 내 은혜에 아주 큰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존재가 나의 도움을 받아들인다면, 존재는 자신이 자유의지로 도달해야 하고, 도달할 수 있는 상태에 내 뜻을 통해, 나의 도움을 통해 도달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또한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내 은혜의 효력을 나를 향한 인간의 의지에 의존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은혜의 효력을 갈망한다면, 나의 은혜의 효력은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원하지 않고 아직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자원하여 나에게 다시 향할 때까지 은혜의 효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게 받을 수 있고, 나의 은혜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짧은 시간 내에 영적인 성장과 혼의 성숙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내가 효력이 나타나는 일에 단지 의지가 나에게 향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추구해야 하는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게 축복되어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흐름이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은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로써 인간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가 저항하지 않고 은혜의 효력에 자신을 맡긴다면, 그의 의지가 어디로 향할지 정하지 않았고, 아래로 향하려는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의 의지가

변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나의 은혜에 사로 잡힌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내 은혜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될 것이고, 자신의 피조물을 되 찾으려는 영원한 사랑의 공훈의 역사로 깨닫게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는 혼이 아직 나에게 향하는 길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혼은 은혜의 효력을 느끼고 은혜에 순종한다. 나에게 향한 혼은 은혜에 의해 나에게 인도받는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대적하는 혼은 은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 혼에게 그의 저항을 포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고, 축복되기 위해 자유의지로 그의 저항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혜와 의지는 실제 의지가 은혜의 효력을 정하고, 은혜가 의지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나는 내 사랑과 공훈을 통해 인간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을 무기력하게 대적하는 세력에게 맡겨 두지 않고 항상 또 다시 내 은혜와 함께 그에게 다가간다. 이로써 그가 내 은혜의 효력을 시험해볼 수 있게 한다. 즉 나를 대적하는 그의 저항을 포기하고, 그가 내 은혜의 효력을 분명하게 경험하기 위해 나를 자신에게 이끌게 한다. 나는 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돕는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내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가 전적인 자유를 누리게 한다.

아멘

의지와 은혜. (빌립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니" 에 대한 이의 제기 )

B.D. No. 1937  
1941년 6월 3일

**인**간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영적인 정체상태가 발생하고, 어떤 성공도 할 수 없게 된다. 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일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의 몫을 다해야만 한다. 그는 원해야만 하고, 힘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위를 향해 추구한다. 사람의 의지를 제외시키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의지가 먼저 행동해야만 하고, 이를 사람이 피할 수 없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으로 여긴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오류이고, 계속되는 오류를 불러온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훈이 실제 사람을 사로잡아,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모든 기회를 주는 일은 사실이다. 왜냐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 가기 위해,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게 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에서 자유의지는 그에게 계속되는 은혜를 주어질 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인간이 합격해야 하는 시험의 기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진리를 이 땅에 전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거나, 빠진 곳에서 명확한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그는 지금까지 잘못 파악한 것들을 바로 잡아줘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거짓으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을 진리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에 저항한다면, 그는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일하고, 그의 내면은 절대로 선명하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을 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이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이제 자유로운 결정은 다시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효력을 나타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의 의지가 심장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드릴 수 있게 하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선명한 깨달음이 사람들이 비로소 책임감을 의식하게 한다. 반면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인간이 의지를 갖게 만든다는, 지금까지 가졌던 잘못된 견해가 사람 안의 일하려는 충동을 무력화시킨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은혜를 전해줌으로써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도움의 수단은 사람이 무제한으로 제공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쉽게 해준다. 그러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사람 자신이 동인이 되어 행해야 한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하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결정하면서, 인간의 결정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개입을 한다면, 진실로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주어진다. 이로써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오류를 퍼뜨리려는 의도가 없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인간의 해석을 오류로 인도하는, 오류에 주의할 기울이고, 오류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일은 당연히 심각한 일이다. 왜냐면 이런 해석이 그를 잘못된 생각으로 인도하고, 신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붙잡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한다. 그러나 그가 육신을 입기를 시작할 때, 그가 부여받은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그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단지 자유의지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항상 더 높은 권세에 의해 항상 지속적으로 통제되는 꼭두각시로 여긴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의지를 속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러면 인간 혼의 더 높은 성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후보자들을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공급하여, 하나님에 의해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긴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아멘

1937 번 계시에 대한 보충. 은혜.

B.D. No. 1939

1941 년 6 월 4 일

0 | 땅에 거하는 과정을 걷는 일이 지금까지 존재가 인간이 되도록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인간의 단계에서 존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이 본질적

인 존재를 생각하고, 이런 본질적인 존재와 접촉할 수 있다. 존재는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기 위해, 이런 능력을 활용해야만 한다.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존재가 이 땅에 거하는 목적이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신성을 인정하기 원하는 일은 인간으로써 존재가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피하게 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의지가 활동하는 일로 구성된 이 땅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원과 목표에 대한 깨달음이 의지가 일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원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저항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하게 만든다. 저항은 잘못된 방향을 향한 의지이다.

의지는 항상 인간으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단지 의지가 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타낼 것이다. 다시 말해, 비록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를 증거하고, 따라서 의지가 올바르게 일하게 하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의지를 하나님의 질서로 인도한다면,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존재나 또는 다른 존재를 버려둔다면, 즉 그들을 올바른 의지를 갖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부인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잘못된 견해가 자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런 오류를 세상에 퍼뜨리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그런 오류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 거짓과 오류를 절대적으로 제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혼란스러운 생각이 의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무한한 사랑으로, 지혜롭고, 전능한 존재로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믿음이 있게 되고, 그러면 비로소 최고로 온전한 존재를 향한 사랑이 활성화되고, 이런 사랑에서 그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또한 활성화된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동인이 되어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갖게 된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된 의지의 결과인 무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너희가 측량하는 대로 너희가 측량을 받게 될 것이다.”

이웃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관해, 자신을 염려하지 않고, 주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심장의 사랑이 그가 그렇게 행하게 한다면, 그가 조금이라도 이기심 없이 행한다면, 그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주기를 원할 것이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자신을 합당하게 만들어야만 하고, 같은 일을 행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이웃 사람에게도 기꺼이 주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잃을 수 있게 될까 봐 염려하여, 이웃 사람에게 단지 적게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는 마찬가지로 적게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자주 주어진다. 이로써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오만하게 외적으로 자신을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피조물로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는 평안이 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이 부족할 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는 주변 세계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원하여 베풀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모든 재산을 잃게 될 것임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높은 권세가 그에게서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 단지 그가 사랑을 행하도록 양육하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줄 때, 그가 비로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이웃사람과 나누는 사람은, 항상 베풀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띄게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자원하는 모든 것은 이런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다가오는 날이 그에게 가져올 일에 대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항상 인간이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필요한 곳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눠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이미 성숙하게 되어, 자원하여, 겉으로 보기에 이 땅의 삶을 위해, 그에게 필수적인 것을 주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이웃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 6. 6. 1941

인생의 투쟁. 하나님의 인도. 신앙.

그의 이 땅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퇴보할 위험 가운데 있는 이웃사람에게 그의 이 땅의 사명을 알려주는 일은 긴급하게 해야 할 이웃사랑이다. 그런 사람들은 혼을 형성하는 일에 주의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실제적인 목적을 알기 전에는, 그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웃사람을 깨우쳐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혼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믿기를 원한다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무심코 허락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혼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사람이 짊어지게 하는 일이다.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낸 모든 사건에 복종하는 한, 모든 사건이 그에게 유용하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가해지는 시험이 그를 흔들리게 하거나, 믿음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험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헛된 인생의 투쟁을 하지 않게 되려면, 그가 통과해야만 하는 인생의 투쟁이다.

인간에게 단지 끊임없는 투쟁이었던 삶만이 혼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축복은 영원 속에서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의 인도를 받았고, 그가 그런 길로 가야만 했고, 그런 길이 그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위해, 유일하게 옳은 길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그는 염려가 없는, 쉬운 삶을 소원한다. 그는 이런 소원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원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소원의 성취가 얼마나 자주 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야 한다. 왜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빠르게 불행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사랑과 공흠을 믿기를 요구한다. 그는 도움이 필요해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과 공흠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고, 외부에서 오는 모든 유혹을 견딘다면, 이 땅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혼이 자신의 육체의 곁형체를 벗어나게 되면, 혼은 환호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혼은 이제 올바르게 사용한 이 땅의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이런 싸움은 이제 끝이 난다. 그럴지라도 존재는 저세상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지내지 않게 된다. 왜냐면 수많은 혼들의 구원이 다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일은 다시 하나의 싸움이고, 존재가 다시 싸워야만 한다. 다시 말해 저세상에서 혼들을 아직 억압하는 세력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이런 혼들은 모든 저항을 이기기 위해 그들의 모든 의지를 드리지 않은 혼들이고, 그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저세상에서 아직 싸우는 혼에게 엄청난 힘이 제공된다. 이로써 혼이 저항을 최종적으로 극복하고 평화를 찾게 한다.

아멘

영적인 계시를 해주는 과정. 예언.

진리를 향한 충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을 채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가까이에 거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거나, 이세상과 저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의 소유한 존재를 통해 진리를 전해주면서, 그들을 만난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진리를 받고, 전해야만 한다. 그들은 항상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배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게 된다. 왜냐면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신적인 것을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전해주는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드리는 동안에는, 지속이 되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다.

하나님과의 이런 연결은 힘을 전하는 것과 같다. 이 힘은 사람의 영의 상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제공된 것은, 비록 그가 이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직 완전하게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하여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히 그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제공된 것이 축복이 되려면, 그는 항상 자원하여 영접할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선물이 사랑으로 전해졌지만, 자원하지 않으면서 듣는다면, 선물의 효과가 나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귀로는 들리지만, 그러나 인간의 심장에서는 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성조차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왜냐면 자원하는 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친히 은사를 준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에 감사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곳에서, 그러므로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임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효능과 능력이 없는 외적인 말씀으로 머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도 말씀이 공급되는 일이고,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 무언가를 스스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일이다. 이로써 그들이 이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초자연적 힘에서 기원을 찾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한다.

무지한 사람은 현명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무지 속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자녀가 자신을 열고, 자신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모든 존재들이 적극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전해주는 과정은 단지 의지의 결과물이다. 저세상의 존재들은 항상 기꺼이 주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기꺼이 받아드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의지가 유일하게 그런 존재들의 가르치는 활동을 정하고,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의 총만한 정도를 정한다.

그에게 무엇이 제공되게 할지는 그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심장을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기쁨으로, 갈망하는 가운데 선물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에게 귀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이일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갈망하는 심장이 뛰게 되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의 영을 그에게 채운다. 생각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 가는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에게 이끌려고 시도하고, 가장 깊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게 나눠줄 수 있기 위해, 갈망받기를 원한다. 그는 사랑을 줄 수 있기 위해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는 그들과 연결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들이 자신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이고, 자신이 그들의 창조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를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함과 지혜를 믿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 주님을 위해 일하라고 너를 부르는 날이 오면, 너에게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일은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끝내게 될 것이다. 이일은 주님이 너에게 정한 일을 위해 네 자신을 바칠 시간을 의미한다.

너에게 큰 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한다. 땅이 흔들리게 될 때, 너는 너와 가깝고, 너를 보호하고, 보호하게 될 하나님과의 연결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너를 총만하게 채울 것이다. 왜냐면 주님은 자신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

건은 너희를 매우 흥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날이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너희에게 알리는 지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영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게 될 것이고,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를 통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랑 안에 머물라.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항상 잘 듣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웃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친히 너희에게 다가 가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너희를 선택했다.

아멘

육체의 길. 이 전의 삶에 대한 지식. 섬기는 일.

묶임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모든 존재는 육체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마치기 전에는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고 영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존재는, 모든 걸형체가 존재에게 강제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 육신을 입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이 땅의 투쟁에 임한다. 존재는 이 과제에 필적할 수 있게 성장했다고 느끼고, 이 과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육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스스로 추구한다.

혼들에게 이 땅의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또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성숙의 정도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혼들에게 그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분량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비록 혼이 자신의 이 전의 형성에 관한 의식을 빼앗기고, 이제 완전한 무지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시작할지라도, 혼은 마지막 과정을 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혼이 이전에 더 자원하여 섬겼을수록, 혼은 이제 이 땅의 요구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혼은 또한 이 땅의 삶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섬김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자원하여 선언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에게 이제 섬기려는 의지가 흔들리는 삶의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는 삶의 모든 기쁨과 편안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혼은 이제 아직 섬길 자세가 되어있는 지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혼은 저항을 통과해서 가야만 하고, 이런 저항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이제 이전에 열심을 가졌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일이 비로소 혼을 자유롭게 한다. 섬기려는 의지가 혼에게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는 은혜를 주었지만, 그러나 행하는 의지가 혼을 마지막 형체로부터 다시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고, 혼이 행할 것을 약속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존재는 혼 자신이다. 왜냐하면 비록 혼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 혼의 걸형체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 족쇄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아직 혼에게 전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걸형체를 영원의 세계로 가지고 간다. 다시 말해 혼은 이 땅의 육체 안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영의 족쇄를 느낀다. 혼이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심할 때까지 이런 족쇄를 느껴야만 한다. 어떤 존재도 육신을 입는 이 땅의 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이 땅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의 묶임을 받은 상태를, 실제 이 땅에 거하는 기간을 단지 연장시킨다.

성숙하지 못한 혼은, 이미 이 땅을 떠났을지라도, 그의 섬기는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분리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섬기려는 의지가 자주 아주 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지를 행동에 옮기게 하려면, 두 배의 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처럼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게 된다. 이 땅에서는 아주 작은 의지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는 그의 형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이 땅의 과제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믿음과 신뢰. 고통의 끝.

세상의 삶이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라도, 영원히 그의 자녀들인, 너희를 사랑하는,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도록, 너희를 돕기를 원하는 너희의 아버지를 잊지 말라. 너희가 항상 이런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는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지키고, 그의 팔이 모든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너희를 비할 데 없이 행복하게 해야만 하겠느냐!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너희의 모든 고통을 그에게 맡기면, 그는 또한 너희에게서 고난을 거두어 드리고, 모든 위험을 통과하도록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사랑이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방법으로는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는 너희를 돕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고난을 택한다. 왜냐면 이 땅의 행복하고 기쁜 삶은 영적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오든, 그의 도움에 대한 믿음이 외부에서 너희에게 다가오기 원하는 모든 불행한 일을 막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두려움이 없이 모든 시험을 직면할 수 있다. 대적자는 믿음이 깊은 사람을 시험해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에게 고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가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안다. 하나님은 모든 개개인의 혼의 성숙한 정도를 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땅의 고난을 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실천되는 도움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단지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야만 한다. 너희는 기도로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기도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내면의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고난을 하늘의 아버지께 맡기게 된다. 모든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믿음이 유일하게 너희를 도왔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걱정을 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녀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원한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깨닫고, 갈망하도록, 자신의 모든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고 위해, 자녀들이 모든 위험 가운데서 자신에게 도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는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무한한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의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도움을 넘치게 준다.

아멘

영적인 재물의 보호. 세상의 조치.

너희는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너희 내면이 선명해지게 하라. 왜냐하면 오래 걸리지 않아, 외적인 일에 관함 것일지라도, 너희가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심장에 간직한 것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너희의 영적인 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 가장 극심한 개입조차도 너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개입이 단지 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심장으로 내 곁에 서자마자, 너희는 너희 혼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고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양식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면, 너희는 나 자신으로부터 영적인 재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쉬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것이 너희가 외적인 것을 빼앗길지라도,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서 진리의 영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은 나에게서 나오고, 다시 나에게 돌아가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영향으로 진리의 영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밖에 있는,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 나의 영을 그들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가 세운 것을 파괴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과 추구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와 연결이 된 사람은 그런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머물러야 할 어떤 것도 파괴되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진실로, 나의 뜻이 이 땅에 도달하게 하는 어떤 것도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믿으라.

대적자가 또한 더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의 역사가 나를 대적하면, 나는 그에게 한계를 정한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함께 뭉쳐야 한다. 그들은 나에게 종속된 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 안에 있는 그들의 주님을 깨달아야 하고, 나를 섬기고, 섬기는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대항하는 싸움이 분명하게 일어날 때, 내 전사로서 그들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나에게 반항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내가 나에게 순복하는 세력을 싸우러 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적으로 머무르게 된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동안에는 그는 어떤 이 땅의 조치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의 희소성. 의지의 힘.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해주는 일이 단지 희귀하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 받은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항상 어디서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단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웃사람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가장 높은 의지의 힘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멀리 떨어진 생각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해야만 한다.

이런 일을 위해 가장 큰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일은 영의 나라로 날라가는 일이고, 영의 나라에 있는 보물을 얻기 전에 먼저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인간의 의지가 위를 향해 날아오르자마자, 그에게 진리의 원천이 열리게 될 것이고, 형체가 된 하나님의 능력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이제 사람에게 흐르고, 그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영접하게 된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의 지식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무지한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한다. 그들이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들은 그런 사람의 생각이 진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인도한다. 사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므로 이 일이 가장 큰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활동이지만 사자들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한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진리를 추구하는 동안에는, 끝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연결이 이뤄지고, 빛의 존재는 고군분투하는 인간이 가능한 한 자주 높은 곳으로 오르는 일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왜냐하면 영적인 선물은 단지 영적인 선물의 출처인 영의 나라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자신의 이 땅의 환경에서 자원하여 자신을 분리시켜야만 한다. 그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재물을 갈망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땅과 영의 나라의 연결이 확립되어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재물이 그에게 측량할 수 없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존재의 구원. 빛의 전달자. 지식과 빛.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한다면, 그의 이 땅의 과제는 이미 성취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순간부터, 비록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직 자주 약해지고, 이런 의지가 부족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그의 소원으로, 그가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사라진다. 그는 자신의 기원을 깨닫고, 자신의 기원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이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린다.

이제부터 그의 곁에 그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그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세력들이 함께 한다. 이런 세력들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로써 그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붙잡힘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했던 옛 죄에 다시 빠질 수 없다. 그는 자유의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영원히 그에게 헌신하는 가운데 머문다. 다시 타락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연합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시간은 단지 성장을 위한 시간이고, 빛과 지식의 증가를 위한 시간이다. 이는 증가된 사랑을 행하는 일과 구원하는 일로 나타난다. 사람이 스스로 대적자의 의지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면, 그의 계속되는 활동은 이웃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이 되고, 다른 이 땅의 일은 그에게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웃사람의 혼을 위한 일이 그의 모든 생각이고, 그가 추구하는 일이 된다. 그는 이제 비로소 최고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게 된다. 그는 저세상의 빛의 존재들의 일에 참여하고, 이제 구속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구속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의 뜻과 그의 일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이 일에 이제 큰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런 은혜가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는 또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영적인 구원은 이전의 가장 어두운 상태를 빛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영의 어두움은 무지이다. 그러나 빛은 지식이다. 그러므로 구속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가 빛의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영적인 존재에게 지식을 알려줘야만 한다.

이런 과제는 비록 사람이 이 땅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아직 빛의 전달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가 이 땅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가 전하기 원하는 지식은 이 땅의 지식과 공통점이 없다. 그가 이웃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지혜는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게 자신을 형성한 사람이 단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진실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다. 왜냐하면 그는 휴경지를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는 동시에 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시도한다. 그는 그들에게 영적 지식을 전하려고 노력한다. 이로써 인류가 처한 어두움의 상태를 밝은 빛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사람들 사이에 빛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일은 당연히 좋고 옳은 일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위대한 과제를 향한 의지가 축복을 받는다. 그는 강하게 되고, 활기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저세상의 빛의 존재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곳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런 일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이런 큰 과제를 향하게 하는 일이다. 이로써 이 땅의 빛의 전달자가 그의 일에 연약해지지 않게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를 구원하는 일이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모든 사람의 심장의 상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진실로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부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그의 의지가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빛과 능력과, 지식과 힘을 채워준다. 그는 그의 마지막 이 땅의 과제를 완수할 것이다. 그는 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진실로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꾼으로서 일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고, 소수가 택함을 받는다. 포도원의 일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를 맡기고, 그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넘치게 부여준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저항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기 위한 연결 고리가 되어, 이 땅에서 저세상으로 향하는 다리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단지 소수만이 택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분명하게 흘러간다. 이런 일로부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계시를 받는 일에 어떤 힘이 역사하는지, 이 일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지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형태로 주든지 간에,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한, 항상 이해할 수 없게 머물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삶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섬기는 일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부른다면, 그는 이런 부름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런 부름을 듣는다면, 그는 이 땅의 세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부름에 순종할 수 없다.

단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하도록 택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그가 더 이상 이 땅의 세계에 묶이지 않을 때, 그가 자신의 뜻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끊임없는 인도를 받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그가 비로소 내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를 돌보는 존재들에 의해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는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헌신이 그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한다. 그는 중단 없이 지시를 받고, 빛을 받아, 그가 이제 이 빛을 계속 비춰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들의 맹목과 완고함 속에서 더 이상 스스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혼이 구원을 위해 신음하는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섬기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한 사람이 인류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고, 그가 필요한 곳에서 사랑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아멘

영의 깨어남. 사랑.

영이 깨어나는 일은 항상 단지 이웃 사랑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고귀하게 만드는 일이 선행 될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랑의 역사는 혼을 정화시키고, 따라서 영을 묶는 사슬을 깨뜨린다. 왜냐면 걸형체가 아직 두꺼운 동안에는 영이 사람 안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이제 긴밀한 기도를 통해 영이 자유롭게 하기 위한 힘을 간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항상 단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더 쉽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어느정도 겸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이 그에게 어렵지 않다.

모든 기도는 힘을 공급해준다. 사람이 수행하기 위해 큰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을 그는 긴밀한 기도 후에 쉽게 완수한다. 기도의 힘은 강력하다. 그러나 이를 너무 적게 깨닫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때때 그 안의 영이 자유롭게 되기까지, 열심히 투쟁해야만 한다. 반면에 진심 어린 기도는 그들을 힘을 들이지 않고 높은 곳으로 향하게 인도한다.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도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다시 말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추구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이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웃 사랑을 행하는 일이 또한 사랑 자체인 하나님을 끌어드린다. 사랑은 사람 안에서 영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이 빛과 힘을, 즉 지식과 권세를 그에게 전해주는, 자신 밖의 영적인 존재와 연결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수 있고, 혼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성숙해질 것이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의지와 은혜. (첫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B.D. No. 2468

1942년 9월 9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려고 시도하고,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고, 때문에 인간을 강제로 깨닫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먼저 고려되어야만 한다. 사람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역사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세상에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 항상 사람들을 돕기를 원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없이 머문다. 그러므로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얼마나 적게 비춤을 받고 있는 지를 다른 방식으로 깨닫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이 진리와 빛을 가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에게 모순이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그들이 대답하기에는 자신의 지식을 넘어서는 질문을 받아야만 한다. 이로써 그들이 이제 스스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길로 가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자신의 피조물들 안에 진리를 향한 의지가 활성화되면, 자신의 피조물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인도하기 때문이다. 영의 은사가 진실로 순수한 진리라는 유일한 보증이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으로 염려없이 거부할 수 있다. 영의 은사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야만 한다. 영의 은사는 영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통치에 대해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영의 은사를 영의 은사로 영접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영의 은사가 하나님의 힘의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기원임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영의 은사는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은혜의 선물이고, 이로써 높은 곳을 향한 길을 더 쉽게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런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의 효과를 믿고 맡길 때, 이를 위해 그의 의지가 요구되고, 그럴 때 이런 은혜의 선물이 단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저항한다면, 즉 그가 내적으로 거부한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효과가 나타난다면 사람이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빛으로, 지식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자유의지가 침해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은혜로써 역사하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의 선물을 존중하고, 은혜의 선물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로 여기는 일이 옳다. 그러나 은혜가 효력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

아멘

의지가 먼저인가? 아니면 은혜가 먼저인가?

B.D. No. 8969

1965년 4월 26일

**너**희는 내 은혜로 만족하라. 왜냐면 내가 너희가 단지 은혜를 통해 축복될 수 있게 너희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인지를 항상 의식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은혜의 선물로 활용하면, 이 땅의 삶이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가 너희를 지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가 육신을 입기 시작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헛되게 된다.

가장 크고 가장 값진 내 은혜의 선물은 내 말씀이고 너희가 내 말씀을 듣기 원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심장 깊은 곳으로부터 내 말씀을 갈망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너희는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원래 초기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게 되고 헤아릴 수 없게 축복되게 되면, 완성을 향한 너희의 길은 더 이상 먼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너희는 항상 너희의 의지가 일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의지가 먼저이다. 은혜가 측량 없이 너희에게 임할지라도 의지가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너희는 은혜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너희의 상태도 변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가 육신을 입는 초기와 같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맘대로 은혜를 나눠준다고 말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에게 동일한 양의 은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 내 피조물이 온전하게 되는 일을 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가 축복받거나 정죄받도록 택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축복받거나 정죄받는 일은 전적으로 너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너희는 이미 의지의 자유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모든 제기된 이의를 반박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잘못 이해한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이런 성경 구절로 내가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이룬다고 믿는다면, 너희가 이 구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내가 실제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왜냐면 너희가 나로부터 힘을 받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자유의지를 스스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은혜를 활용한다면 너희가 확실하게 온전하게 되게 할 정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지만 그러나 의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큰 책임이 있고 빛의 존재들과 어두움의 세력들 모두가 너희의 의지를 얻기 위해 싸운다. 빛의 존재들은 의지가 나에게 향하고 전적으로 선으로 향하게 만들기 위해 싸우는 반면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추구하는 일은 너희의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려고 추구한다. 즉 너희가 나를 떠나 온전하게 되기 위해 추구하는 일을 막으려는 추구를 한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언제든지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풍성한 은혜가 너희의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만들 수 있고 항상 단지 너희가 나를 은혜의 원천으로 깨닫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너희의 의지도 또한 준비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으로 전해진 내 말씀이 너희에게 제공되면, 모든 사람이 내 말씀을 특별한 은혜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성이 또한 단지 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질문하기만 하면 되고 내 말씀이 사람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그가 아직 내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의 의지가 내 말씀에 저항하고 이런 의지가 결정적이고 그러면 그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그가 영원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서서히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영원 가운데 그의 운명이 정해진다.

아멘

이 땅의 과정은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께 귀환.

B.D. No. 6096

1954년 11월 2일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갈 수 있게 된 일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역사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빛과 힘을 다시 소유하게 될 수 있는 너희가 벌어들이지 않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영원한 사랑에 대항한 죄는 너무 커서 영원한 저주가 그런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를 존재하게 만들고 그의 아주 큰 사랑이 너희를 생명으로 불러낸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한 존재에 대항해 반역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런 사랑을 거부했고 너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푼 그를 대적했다. 이로써 너희가 그와 너희 사이에 간격을 만들었고 너희가 이 간격을 절대로 연결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일은 어두움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일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를 다시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 자신과 너희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방법과 수단을 찾았다. 이 일에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일이 속해 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공로가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 너희가 하나님께 직접 인도하는 길로 인도받기 때문이다.

너희가 타락했던 모든 기억은 너희에게서 지워졌고 너희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선이나 악을 원하고 생각하고 행할지 결정하는 단 하나 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너희가 한때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너희의 의지가 선하면, 너희는 이 죄를 다시 상쇄시킬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선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의지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너희가 한때 대적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희가 빛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아 너희의 원래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 일은 은혜의 역사이고 너희가 이런 은혜의 역사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하고 이 사랑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일을 통해 이 사랑에 보답하면서 너희 자신을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단지 이런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벌어들이지 않은 은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충분할 수 없고 혼이 다시 빛과 힘을 가진 상태가 되면, 혼이 비로소 이 가치를 깨닫고 그러면 비로소 혼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누구인지 누구가 되어 할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혼이 비로소 한때 자신이 저항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혼은 모든 긴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랑 가운데 자신의 축복을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인 거듭남. 은혜.

B.D. No. 3266

1944년 9월 23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한 증거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일으킨다면, 어떤 사람도 영의 어두움 속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이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거듭남은 성장한 신호이고, 온전하게 되기 위한 단계이고, 단지 자유의지로 도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거듭남은 은혜의 역사이다. 다시 말해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역사하게 했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여,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효과는 영적인 거듭남이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긴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 자신을 여는 사람이 단지 영이 거듭나는 일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 안의 영이 깨어나는 일은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자신의 영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한다.

사람의 의지가 없이는 영이 깨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혼이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신을 지배하는 사탄의 강력한 권세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적인 개입이 없이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영을 해방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점유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빼앗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은 이미 어느 정도 성숙 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는 또한 하나님께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영이 깨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간주돼야만 하는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의지는 끊임없이 활동해야만 하고,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구해야만 하고, 그는 항상 이런 은혜에 자신을 열고, 이런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영이 깨어나는 일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은혜이다. 그러나 사람이 완전히 자유의지로 자신을 열 때에 비로소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자유의지가 은혜를 요청하고, 자유의지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가 다시 영을 깨어나게 하고, 영적인 활동이 다시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한다.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신적인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낮은 성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무가치함을 간과하고, 사람이 자원하여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하면, 그에게 신적인 선물을 준다. 의지는 기도를 통해, 사랑을 행함을 통해 표현된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고,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은혜를 주기 때문이다.

(1944년 9월 23일)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 왜냐하면 영이 이제 그를 이끌고 인도하고, 끊임없이 그가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그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그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넘어 질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키고 끊임없이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일을 막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실로 그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넘치게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는 그렇게 받을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선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활용한다면, 그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인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제공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도 또한 올바르게 사용하면, 무한한 축복을 주고 혼의 영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은혜이다.

영이 생명으로 깨어난 사람은, 즉 영이 거듭난 사람은 또한 고난을 짊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고난이 그를 성장하게 해야 하고, 그를 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떤 혼도, 심지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조차도 혼이 이미 그렇게 맑고 순수해서 정화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 더 높게 성장하도록 돕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면 이 땅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성숙에 도달하는 일이 영이 거듭난 사람의 목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가 얻고자 하는 은혜의 분량을, 그가 요구하는 은혜의 분량을, 그가 자신을 개방함으로 받기 원하는 은혜의 분량을 그가 자유롭게 정하게 한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끊임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를 절대로 전혀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의 혼이 쉬지 않고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도울 것이다.

아멘

내적인 깨달음의 은혜.

B.D. No. 5248

1951년 11월 1일

**나**와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고 순수한 진리를 위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적인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진리를 향한 인간의 의지와 갈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이 이런 의지를 드러낸다. 이런 진리를 향한 의지와 갈망이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이 존재했다면, 영적 성장이 진실로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왜냐면 깨달은 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일을 통해 올바른 지식이 널리 전파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또한 강한 믿음으로 인도했을 것이고, 나와 연결이 이뤄졌다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이미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향한 갈망이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가지에서 다른 한 가지가 나온다. 사람들이 나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 즉 사람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내가 가장 온전하고 가장 권세 있는 존재로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또한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그들의 영을 밝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하게 된다. 그들은 내가 그에게 명료함을 줘야 하는 것이 우선 그의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실제 또한 그의 생각에 깨우침을 준다. 그러나 나로부터 온 영이 그의 이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면 내 영이 없이는 이성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그는 또한 친구가 자신에게 호의를 갖게 하기 위해 또는 친구에게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알리기 위해 친구의 의지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도 또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노력을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그는 스스로 사랑을 베풀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를 향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그가 나에게 영의 깨달음을 구하게 만든 사랑이다. 한 가지가 없이는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어겨서는 안되는 법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직 두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그는 또한 외부에서 내 일꾼이나 또는 기록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지식을 단지 이성이 영접하면, 그가 스스로 나를 믿고, 사랑을 행하고,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갖는 조건을 성취시킬 때까지 이런 지식은 죽은 지식으로 머문다. 그러나 그는 이런 죽은 지식을 통해 생각이 자극을 받고, 깨달은 대로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는 비록 시험적이라 할지라도 믿기를 원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의 지식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성이 아닌 심장에 이끌려 나를 찾게 된다. 그는 기회를 활용했고, 나를 믿는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일과, 진리를 향한 갈망을 통해 다시 올바른 지혜를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이제 올바르게 해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진지하게 찾는 모든 사람이 나를 찾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단지 의지가 필요하다. 즉 모든 사람이 실제 짐작하지만,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인 나에게 향해야만 하는 의지가 단지 필요하다. 그러나 그가 의식적으로 나를 외면하는 동안에는, 내가 또한 그를 강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는 스스로 나에게 나와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내 피조물들에게 아버지처럼 행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피조물들을 내 자녀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일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또한 내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넘치게 큰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음성이다

B.D. No. 8867

1964년 10월 13일

**나** 자신으로부터 듣는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커서 너희는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 자신이 너희 인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너희에게 말을 건다. 무한하신 최고의 영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일어나는 일의 주관자가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다스리는 분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를 떠나 타락한 원래의 영이었던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너희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귀환하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가 영원들의 시간 동안 그와 멀리 떨어져 머물고 있을지라도 그는 너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너희의 귀환의 역사가 성공할 때까지 마지막 타락한 영적인 것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인간들이 다시 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나 자신이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너희가 온전함에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너희와 단 둘이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너희가 원래의 초기의 상태로 다시 되 돌아가는 것이 내 의지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

너희가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 선택한 그릇인 한 인간에게서 들으면, 너의 모두는 나로부터 들을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단지 너희가 단지 귀로만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을 수 있게 너희 심장을 열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것을 따르고 이제 너희가 내 의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자기 사랑을 순수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이를 통해 온전함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 모두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선물이다. 너희가 이 선물을 그냥 지나친다면, 너희는 나중에 쓰게 후회할 것이다. 왜냐면 종말의 때까지 그들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큰 은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 그들을 더 뒤로 퇴보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파문에 다시 갈 것이다. 이것을 나는 너희에게서 면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내 소식을 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게 내 일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권리를 나로부터 받은 내가 그에게 항상 항상 가르쳐 주어서 이 들이 똑같이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가 내 뜻을 체험하고 내 뜻을 성취시키게 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너희는 모른다. 왜냐면 세상은 혼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단지 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혼은 아주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가고 혼은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세상에서의 혼의 상태는 불쌍한 상태가 된다. 혼은 험뵈고 적나라한 상태로 저세상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영적인 재산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런 큰 영적인 위험을 해결하려고 너희들 모두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너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를 영접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다음 사실을 눈앞에 두어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너희에게 대화를 요청하면, 너희는 큰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한때 이 은혜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왜냐면 한번은 너희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일을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삶에서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희는 물질 안을 거치는 과정을 다시 겪을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것이어서 종말의 때에 너희에게 새로운 파문의 운명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수단으로 너희가 변화될 수 있게 시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효력이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B.D. No. 5104

1951년 4월 13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내 은혜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도록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를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나에게 모든 도움을 구해야 한

다. 너희는 또한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스스로 은혜를 얻어야 하고, 이 땅에서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 모두에게 제공되는 내 은혜의 보물을 받는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은혜의 보물을 의식적으로 요청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은혜의 보물이 너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보물을 관리하는 분이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은혜를 얻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혼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한다. 나는 내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 힘이 필요하고, 혼의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혼에게 힘을 공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이 멸망하고 영적 죽음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힘은 단지 빛과 힘의 영원한 원천인 나를 근원으로 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나에게 향하여 힘을 구하거나 사랑을 행함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고,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서 힘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나는 힘을 나눠주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그가 요청하는 일이 그에게 끝없이 공급해주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힘을 준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선물은 너희가 즉시 직접 힘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인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은 내 사랑의 힘이 발산된 것으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내가 이 말씀에 내 축복을 부여했고, 이 말씀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내 말씀이 자신에게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너희 모두에게 많은 힘이 필요하고, 내가 너희의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일은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연약한 상태를 의식하고 내 말씀을 영접하는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희망할 때, 내 말씀이 너희에게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말씀이 너희에게 힘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말씀은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이 심장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게 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말씀이 나와 너희 인간들 사이를 연결시킨다. 너희가 너희의 힘만으로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내려간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연약한 동안에는 나에게 도달하는 길이 끝없이 먼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이 너희를 돕는 곳에서 너희가 쉽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내 은혜를 경멸하고 따라서 위에서 오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가 거부하는 일이 그가 불신자라는 볼 수 있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바닥에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거부했을 때 나의 대적자가 그를 바닥으로 내던졌다. 나를 부인하는 일은 내 말씀을 나에게서 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고, 사람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자신의 창조주에게 순복하지 않는 일이고, 그가 공허의 손을 잡지 않는 일이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와 힘을 받을 수 없고, 그는 연약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는 오만함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죄가 그를 바닥으로 짓누른다. 그러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자

신을 돕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은혜의 선물의 의미. 능력을 제공하는 일.

B.D. No. 7919

1961년 6월 14일

**너**희에게 주어진 대로 내 말을 항상 영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말을 전해 어두움 속에 거하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과 빛을 제공하려는 내 말씀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라. 너희가 큰 영적인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큰 은혜의 선물의 의미를 아는 일이 항상 또 다시 필요하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은 주로 세상을 향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적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일하게 너희에게 너희의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와 연결을 이루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능력이 단지 너희의 이 땅의 소원을 성취하게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삶의 능력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가 확실하게 영적인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하는 사랑을 행하는 일에 삶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면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 너희 혼이 성장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모든 삶의 능력이 사라질 때 영적인 능력은 너희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영적인 능력을 얻는 일이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과제이다. 영적인 능력을 너희는 사랑의 삶을 통해 얻을 수 있고 나에게 긴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고 내 말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다. 내 말은 능력을 직접 전달해주고 너희에게 단지 내 뜻을 다시 알려준다. 내 뜻은 너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랑이 없이는 너희가 축복될 수 없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단지 너희의 영적인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을 추구해야만 함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하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함을 믿으라. 위로부터 내 말이 너희에게 들리면, 이는 진실로 특별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면 이 선물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장하기 위해 너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게 될 때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그러나 너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내 말은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이다. 즉 하늘에서 온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준 너희의 혼을 위한 양식인 만나이다. 내 말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다. 내 말은 너희가 쉬지 않고 생명수를 기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내 말은 너희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의 증거이다.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리면, 나는 그들에게 임재할 수 있다. 내 말은 내 지혜와 권세를 증명한다.

왜냐면 너희가 내 성품에 관한 선명한 관점을 갖게 하는 지식을 얻기 때문이다.

내 말은 내 신적인 사랑의 힘의 비추임이다. 이 비추임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추임은 너희 자신에게 너희 혼에게 역사해야만 하고 너희가 온전함에 이르게 인

도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말을 이 땅 전하고 너희에게 항상 단지 너희의 이웃에게 내 말을 전하라는 사명을 준다.

나는 너희에게 큰 은혜의 선물이 주는 효과와 의미를 항상 또 다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즉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통해 너희에게 알려주는 내 뜻을 실천하면서 의식적으로 내 은혜를 요청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이 너희에게 말함을 믿어야 한다. 왜냐면 나는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이미 나로부터 떨어져 있던 내 자녀들을 다시 얻기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돌아오는 길을 알려 주기 원하고 그들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원한다.

나는 그들 모두를 다시 내 나라에 영접하길 원하고 원래 초기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한다. 아버지는 한때 자유의지로 자신을 떠난 자신의 자녀를 다시 얻기를 원한다.

아멘

구속역사의 은혜.

B.D. No. 2101

1941년 10월 7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이룩한 구속 사역은 은혜이다. 이 은혜가 사람들이 그들의 약한 의지를 극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혼의 원수에게 대적할 수 없는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고, 그들이 힘과 은혜를 갈망한다면, 그들에게 힘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게 흘러가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소한 의지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느끼게 하고, 이런 역사가 영적인 추구가 증가되는 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전의 인류의 상태는 불쌍했고, 혼에게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었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죽음 후의 계속 산다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이 추구하는 일은 단지 이 땅의 이익과 육체적인 행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이 땅의 삶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요청은 단지 이 땅의 삶의 향상을 위한 것이었고, 혼과 혼의 형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적인 노력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자세를 가진 인류가 되었다.

이런 역사는 아직 인간의 의지를 아주 많이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그들을 서로에게 대항하게 하면서 사랑을 잃게 만든 대적자의 역사였다.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수단이 옳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은 악하고, 사랑이 없었다. 그런 때에 인간 예수가 살았다. 예수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주 컸고,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단지 가장 긴밀한 사랑으로만 가능했다.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의 사랑은 고갈될 수 없었다. 예수는 영원한 사랑을 자신 안에 모셨다. 예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보았다. 그는 단지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설교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대적자의



권세를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대적자의 의지는 더 강했고, 그러므로 대적자가 항상 또 다시 인간의 의지를 짓눌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만들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드렸고, 대적자로부터 자신의 의지에 대한 권세를 빼앗았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의 의지를 꺾고,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은 인류를 자유롭게 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희생을 받아들였고,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준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또한 자신을 묶기 원하는 자로부터 도피하려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 속해 있다.

대적자는 아직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 자신의 의지는 대적자의 권세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대적자의 의지에 순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는 혼자서는 너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치렀다. 예수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대적자의 의지에 저항했고, 대적자는 이 의지를 견뎌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힘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강해지는 일이, 사람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일이 구속 사역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이 예수를 모범으로 삼는 일이, 이로써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사랑과 공의 안에서 사는 일이 은혜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대해 진지한 사람은,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혼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짊어지고, 항상 단지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의지가 강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혼의 원수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얻은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로 향하는 길이 그에게 쉽게 될 것이다. 그는 이 길을 절대로 인도가 없이 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세주의 형상이 항상 그에게 빛을 비추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고, 그로 인해 그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도 어렵게 되지 않을 것을 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께 긍휼을 구할 때, 그는 자신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안다. 그는 대적자의 권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원한다면, 그가 대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면 그의 의지를 통해 그에게 힘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그를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다. 인간 예수는 이런 의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다. 그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대항하여, 그를 패배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대적자를 패배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의식적으로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구속역사의 은혜.

B.D. No. 3445

1945년 2월 23일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청하는 일을 해야할 때이다. 왜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었다. 그는 사람들의 고난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십자가를 짊어졌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짐을 덜어주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도움의 요청을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은 이런 부름 후에 강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이 자신의 구속사역의 은혜로서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모든 두려움은 그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더 큰 힘으로 높은 곳을 추구할 것이고, 이 땅의 고통이 그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을 견디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느냐!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적느냐! 얼마나 희귀하게 구속사역의 은혜를 요청하고 의식적으로 받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이 지나칠 보일 정도가 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을 견뎌야만 하고, 이 고난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험이 아주 크고, 인류의 의지는 연약하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들의 길을 가기 때문이고 따라서 엄청난 짐을 지고 큰 정화를 위한 고난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직 이 땅에서 그들 자신이 골고다를 향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그들의 혼의 곁형체가 녹여야 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그들 안의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이로써 그들이 이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깨닫게 한다. 고난이 그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게 하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단지 도움을 준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얻은 것이고, 그들은 언젠가 그들에게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짊어 지도록 도와달라고 구할 때, 단지 이 땅의 고난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연약한 의지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고난의 때를 통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 더 이상 힘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이 힘으로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고난에 의해 짓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죄에 대한 형벌도 자신의 어깨로 짊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구한다면, 그는 그의 이 땅의 삶을 통해 정화가 될 수 있다. 그는 정화나 고통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적으로 강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단지 고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속사역의 은혜가 제한이 없게 인간에게 제공된다. 그는 이 은혜를 항상 끊임없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운명이 진실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구원받으려면 활용해야 하는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위험 가운데 십자가로 도피하기 때문이다. 그는 헛되이 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의 고난은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의 의지는 강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적인 육체적 비참함을 극복하는 그의 힘이 증가 될 것이고, 그는 삶의 싸움을 견디어 낼 것이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은 성공할 것이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에게 다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가장 큰 구속사역의 은혜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일이다.

B.D. No. 7033

1958년 2월 4일

**너**희는 언제든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무한한 은혜를 벌어드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물을 사용함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에게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능력이 부족할 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은 그에게 너희 능력을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너희가 이 능력을 그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한 너희의 의지를 방향을 정해 달라고 구하기 위한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그의 뜻은 너희가 항상 그가 너희와 너희의 죄짐을 위해 감당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다. 그의 뜻은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그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는 삶을 살면서 그를 따르는 것이고 너희가 그의 신적인 의지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항상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제한이 없는 은혜를 벌어드렸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요청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을 돕기 위해 너희를 너희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영원한 사랑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너희가 연약하고 빛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그의 은혜의 제공이 없이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이런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의 역사를 완성했고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너희를 연약한 상태로 소유하기 원한다.

너희 혼자서는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을 선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귀한 선물이 너희에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너희는 그에게 구해야만 하고 감사하게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대적자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의지가 너희 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갑작스럽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는 예수의 큰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 관한 지식을 받으면서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을 아주 자주 의식하면서 이런 연약함을 다스리는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면서 항상 자극을 받는다. 이런 일은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벌어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면 너희는 강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너희가 이 길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언젠가 은혜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너희의 관점과 너희의 소원을 항상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돕기 원하는 그에게 향하고 너희가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면, 너희는 이 길을 간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의 샘은 다 퍼낼 수 없게 풍부하다. 단지 한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한 사람은 그의 도움을 여러 배로 체험할 것이다. 은혜의 흐름이 항상 또 다시 그를 감동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혼을 이미 끝없이 긴 기간동안 가두고 있는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구속을 받으려는 그의 의지는 항상 강해질 것이다. 영원으로부터 너희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인 너희는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삶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삶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생각과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의 신적인 의지에 합당하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전에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가 묶고 있는 너희의 의지가 강하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되는 일이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은혜이다. 너희를 이 은혜를 갈망하면, 너희는 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진실로 너희의 이 땅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는 연약하게 머물고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속해 머문다. 사람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한때 자신을 생성되어 나오게 한 분에게 다시 돌아가기 원하면,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아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내 구원 역사의 은혜를 활용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모든 사람은 내 긍휼의 역사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은 사람 자신이 저항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저항은 그가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고 그가 내 피를 통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일이고 이로써 그가 의식적으로 죄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추종자가 되는 일이다.

자신을 내 십자가 아래 두고 자신의 죄의 짐을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에게 빛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빛의 나라가 닫혀 있었다. 내가 그를 위해 속죄를 행했고 이로써 그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희생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그러면 비록 희생이 또한 그를 위해 드러졌고 그가 또한 자신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과 긍휼의 역사는 그에게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자원하여 내 대적자 편에 섰기 때문이다.

내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역사였다. 그러나 단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활용한다. 사람들이 인류가 축복에 도달하도록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너희 사람들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 너희 모두를 위한 인간 예수의 아주 큰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영적인 비참함이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나로부터 분리시킨 큰 죄짐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했다.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아주 충만해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의 겉형체가 나를 모든 충만함으로 거할 수 있게 했고 사랑으로 인해 너희를 위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힘을 키웠다. 너희는 항상 이런 무한한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 은혜는 너희에게 풍성하게 제공이 되고 너희는 단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부르기 만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의 부름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긍휼의 역사가 단지 너희를 위해 행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과 모든 영적인 고통과 세상적인 고통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의 간수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간수장은 너희를 이미 영원한 기간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고 너희가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 자신에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지 않으면, 너희가 그의 묶임 아래 아직 항상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너희는 왜 구속사역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고 예수에게 구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의 죄의 짐을 그의 십자가 아래로 옮기지 않느냐?

너희 혼자서는 그의 권세로부터 절대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너희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겨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 일에 쉽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

수가 너희의 혼의 원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가 없이는 너희는 너무 연약하고 너희는 영원히 그의 권세에 묶여 있게 된다.

너희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주제 넘게 그를 단지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성육신의 신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내 역사를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어 내가 내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열어 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울의 경험. 은혜.

B.D. No. 5803

1953년 11월 12일

**트** 특별한 경험은 항상 은혜로 평가될 수 있다. 왜냐면 특별한 경험이 사람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험을 단지 순전히 세상적인 경험으로 여기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면 또한 은혜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 너희 사람들은 항상 너희 자신에게 일어난 너희의 운명을 인도하는 분과 연결을 구하고 찾게 하는 영향을 미친 모든 사건을 생각하고, 너희가 모든 특별한 사건 속에서 나를 알려주는 암시를 깨닫는다면, 진정 어떤 은혜의 광선도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고, 너희는 특별하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내 명백한 인도에 적게 관심을 기울이고, 너희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경험하고, 너희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일이 너희에게는 단지 우연이고, 그런 일은 너희에게 아무리 의미가 없는 사건들이 특이하게 연결된 일어난 일이다.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기대하고, 너희 모든 각자를 위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역사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너희의 혼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증거가 너희 자신의 의지가 활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깨달음이 축복되게 역사하도록 너희가 얻어야 할 깨달음이 이제 원하고 행동하도록 너희를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강요아래 행하는 일은 자발적인 일로 평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너희에게 강요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빈손이 되게 하지 않는다.

(1953년 11월 12일) 연약한 혼은 특별한 은혜의 선물에 감명을 받을 것이고, 이로써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한 혼은 자신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모든 일이 100% 증거가 아니고, 사람에게 특별하게 일이 그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가 감각을 속이는 일과 건강 문제와 자연 현상에 대해 많은 설명을 찾기 때문이다. 그가 원하면,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의지가 강한 혼은 내 계시보다, 100% 증거를 믿는 일과 내가 주는 계시를 믿는 일보다 이런 설명을 훨씬 더 잘

받아드릴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이 그의 생각을 흔들 수 있고, 그가 다시 생각을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가능성에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지라도 그 자신의 의지가 항상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에는 믿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은혜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믿어야만 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의 뜻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일을 나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이 옳은 일을 행하려는 의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혼에게 나는 도움을 준다. 내가 도움을 주는 방식은 도움을 주기 전에 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이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혼의 생각을 정리해야만 하게 되어, 사람이 이제 전보다 더 행복한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식이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도록 내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먼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지나치고, 항상 순전히 자연적인 설명을 찾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이 내 은혜에 감동을 받아 이 은혜가 자신에게 역사하게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바울로 만들 수 있는 사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명백한 계시로 해석했고, 그가 들은 목소리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심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사울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경고하거나 훈계하기 위해,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말하는 음성보다 더 명확하거나 더 설득력 있게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귀는 내 음성을 들었다. 반면에 오늘날 사람들은 귀를 닫는다. 사울의 이성은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했고 이로써 약간의 자극으로 의지를 바꿀 수 있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역사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지나쳤을 자신의 경험을 그가 체험한대로 묘사했다.

나는 모든 혼을 알고, 모든 혼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혼이 축복을 받도록 섬긴다. 그러나 모든 혼이 내 사랑이 혼에게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혼이 은혜가 자신에게 역사하게 하지 않지만 모든 혼은 제한이 없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은 절대로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혼이 믿어야만 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자유의지는 절대로 침해받지 않는다.

아멘

삶의 어려움은 은혜이다.

B.D. No. 2488

1942년 10월 1일

**하**나님을 위해 결정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어려움은 그의 가장 높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의 삶이 끊임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성숙할 수 있다. 모든 저항은, 그가 이런 저항을 극복하려고 할 때, 그의 의지력을 증가시키고, 일하려는 충동을 증가시킨다. 이런 충동이 없이는 삶은 퇴보한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항이 없으면 일하려는 욕구도 약해지고,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인 혼을 성숙하게 하는 일을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다. 혼의 성숙은 단지 투쟁하는 일과 행하는 일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고, 파괴적인 의미로 일하지 않는다면, 단지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웃사람을 해치지 않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삶을 위한 싸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수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에게 주는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또한 은혜로 역사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이고,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이 땅의 삶의 길에 시험적으로써 사람의 혼에 유익을 주게 할지에 결정적이다. 왜냐면 은혜는 또한 은혜로 인식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과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모든 고난은 단지 혼을 성숙하게 해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아멘

큰 고난과 큰 은혜.

B.D. No. 4117

1947년 9월 7일

**아**주 큰 고난은 특별한 은혜이다. 나의 사랑은 너희가 세상의 광란에 빠져들게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반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장 어두운 위험한 때에 처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이 빈손이 되고, 혼이 영적인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난은 항상 사람들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고, 사람들 자신의 약점을 의식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여겨야만 한다. 고난이 혼이 나에게 돌아가는 일에 기여하고, 혼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나에게 맡기게 한다면, 이런 일은 큰 축복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은혜의 선물로 간주해야만 한다.

왜냐면 고난이 나에게 인도하는 반면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은 반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고난은 사람이 기도하게 만든다. 기도가 없이는 너희와 나 사이의 연결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기도가 없이는 은혜의 선물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기도는 나를 향한 의지와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사람에게 다가가 그가 요청한 것을 그에게 성취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이 올바른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이 자신을 혼에게 알리기 원하면, 육체가 영을 거부한다.

고난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혼이 영의 가르침을 받아, 혼이 영과 하나가 되는 혼의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내가 절대적으로 나의 힘으로 혼에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나는 먼저 도움을 요청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고난이 자유의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재촉한다. 고난은 또한 인간의 심장을 굳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멀리 표류하고, 더 이상 높은 곳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면 더 이상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나에게 인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러면 고난은 그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이런 고난에 대해 나에게 감사하고 또한 고난을 은혜로 인정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 자신이 단지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고난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주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깨달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은 너희에게 설명하기가 쉽고, 너희는 또한 절실한 위험을 잘 이겨낼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



고, 나와 함께 살고, 너희는 기도 안에서 나에게 속하게 되고, 이제 너희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받고, 너희는 확실하게 이 힘을 너희의 사명대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일찍이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 은혜.

B.D. No. 3169

1944년 6월 24일

**수** 많은 혼들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죽은 후에 영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들의 운명은 적게 부러워할 만하고, 빛의 나라가 그들에게 닫힌다. 그들은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합당한 환경에 처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다. 왜냐면 이런 혼들의 자기애가 특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고, 이로써 그들이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을 적게 행했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이 이제 혼이 자신의 어려운 운명을 특히 힘들게 느끼게 한다. 왜냐면 혼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혼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소원이 나타나지만, 혼은 그 것을 잡으려고 시도하면, 그 것이 단지 허상임을 깨닫는다. 혼이 세상의 재물을 더 많이 갈망할수록, 이런 깨달음이 더 고통스럽게 된다.

혼은 이 땅의 삶에서 아직 물질을 극복하지 못했고, 물질에 향한 갈망을 저세상으로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혼은 또한 나눠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운명을 가진 혼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면 혼이 이 땅에서도 또한 이웃 사람들의 고통과 걱정 등에 대한 연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새롭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이로써 혼들이 저세상에 더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성숙하지 못한 혼들이 가진 세상을 향한 집착 때문에 그들은 주로 이 땅 가까이에서 머문다. 혼들은 이제 인간의 손에 의해 행해지는 파괴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상 재물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이 땅의 위험을 보고, 이로써 자신이 도우려는 자극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이 각각의 혼들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 혼들은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이제 저세상에서 그들의 더 높은 성장의 시작 단계에 있게 된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런 은혜를 수많은 사람에게 준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사랑 없음이 이 땅의 삶을 혼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땅의 삶을 마치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고난과 비참함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 재물의 무가치함을 보고, 세상 재물을 향한 욕망을 억누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의 가까이에서 머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특별하게 강하다면, 이런 세상의 고난이 변화되는 일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의 재물을 향한 욕망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자신이 만든 허상이 자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속일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태는 아주 고통스럽고, 혼은 퇴보할 가장 큰 위험에 처하고, 저세상에서 마지막 은혜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일은 크게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마지막 종말 전에 이런 성숙하지 못한 혼이 죽는 일은 그런 혼들에게 아직 은혜이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낮은 성숙 정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세상에서 더 이상 성숙하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조기에 사망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서 실패한 혼들을 구원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는 존재가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최후의 수단이고, 하나님은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남겨 두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가 이런 수단을 사용할지는 존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아멘

저세상에서 은혜를 얻는 일. 빛의 영역에서 하는 일.

B.D. No. 2450

1942년 8월 16일

**이** 땅의 삶의 은혜의 기간은 인간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혼은 영의 나라로 돌아가, 이 땅의 삶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은혜를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영적 재물로 풍성한 축복을 받거나, 가난하고 부족한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은혜의 공급이 존재 자신이 이제 은혜를 위해 싸움해야 할 정도로 중단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올바른 태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즉 사랑으로 일하려는 의지를 통해 사랑의 발산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얻는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시험이 인간에게 실제 마지막 완성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제 큰 사랑으로 또한 저세상의 존재에게 자신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고, 다른 혼들의 고통을 볼 수 있게 하여, 존재가 고통받는 혼들을 돕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돕는다.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통해 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고, 하나님은 어두움의 불행에서 혼을 구하기 위해 측량할 수 없게 자신의 은혜를 다시 준다. 혼들이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혼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혼은 충만하게 축복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기 때문이다.

(1942년 8월 16일) 혼들은 이제 빛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빛의 영역이 그들의 영구적인 환경이 된다. 혼은 더 이상 퇴보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혼은 항상 단지 더 밝은 빛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어떤 그림자도 혼의 행복을 절대로 가리지 못한다. 혼은 이제 저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혼이 단지 가장 깊은 사랑이 자신을 인도하는 일만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이 이제 하는 일이 혼을 행복하게 한다. 사랑을 행하는 혼은 단지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분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혼 자신이 빛이 없는 상태를 겪었고, 자유가 없는 상태를 고통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혼은 자신의 사랑으로 같은 운명을 견뎌야만 하는 혼들을 돕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혼은 이제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혼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

그렇지라도 혼은 자신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혼들의 자유의지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의 작업은 힘이 많이 들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혼의 사랑이 혼이 지지 않게 하고, 이런 노력은 보상을 받는다. 왜냐하면 혼은 혼들이 자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저세상과 이 땅에서 혼들을 위한 일은 구원을 위한 일이다. 이 땅의 사람이 이런 일의 의미를 단지 희귀하게 이해한다.

왜냐면 영원한 축복을 아는 지식이 비로소 그런 일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세상의 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발산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혼은 또한 자신의 과제와 자신의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혼은 이제 자신의 사랑에 기초한 헌신을 드러 자신의 과제를 성취시킨다. 사랑과 축복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이다. 혼은 사랑으로 축복을 전해야만 한다. 왜냐면 혼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혼은 아직 묶여 있는 혼들의 행복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도와야만 한다. 혼은 지식을 전해야만 하고, 지식을 통해 자유롭지 못한 혼들이 또한 자유에 도달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빛의 영역으로, 영원한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한 혼들의 후회.

B.D. No. 4887

1950년 5월 1일

**내**가 말씀 안에서 가까이 다가갔지만 내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혼들은 영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진지하게 점검해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혼들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러면 혼들의 후회는 아주 크게 되고, 내가 준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자책이 혼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 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의 영적으로 성숙한 정도를 알고, 이 정도를 더 높여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가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영원한 진리를 향해 다가가거나 세상을 향해 다가가기 위한 갈림길에 있고, 이제 그의 의지가 어떤 길을 갈지 선택을 한다.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면, 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고, 혼이 이런 책임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비록 인간의 이성이 그런 걱정을 쫓아 내기를 원하지만 혼은 위험에 처한다. 혼과 영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은 영적으로 크게 모순이 되고, 너무 늦기 전에 즉 혼이 이 땅의 곁형체를 떠나기 전에 아직 이성에게 그의 오류를 확신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나 혼이 어두운 상태에서 영의 나라에 들어가면, 혼을 깨우치게 할 빛이 혼 안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그러나 혼의 의식은 또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머문다. 혼이 자신의 잘못으로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 왜냐면 혼에게 나의 사랑과 은혜를 밝혀줄 빛을 혼이 피했기 때문이다. (1950년 5월 1일) 그러면 혼은 큰 고통 가운데 살고, 혼이 한번 거부해서 혼에게 더 이상 제공될 수 없는 큰 은혜의 선물을 갈망하는 가운데 머문다.

혼은 실제 빛의 존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빛의 존재들이 빛의 전달자로서 혼에게 나타나지 않고, 혼의 자유의지는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로써 혼은 다시 교차로 앞에 서게 되고, 혼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혼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는 빛의 혼을 따르거나 또는 혼이 다시 고집을 부리고 빛의 존재들의 도움을 거부하게 된다. 이 땅에서 인간이 위로부터 이 땅으로 비추는 빛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지 않은 것처럼 영의 나라에서도 나의

영원한 사랑이 항상 혼을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베푸는 내 도움에 혼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혼의 의지가 결정한다.

그러나 이 땅의 혼들은 나의 말씀 안에 엄청나게 큰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은혜의 선물이 혼이 확실하게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혼에게 제공되는 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로써 무관심하거나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일은 무책임한 일이다. 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수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어둠이 지배하고 불행한 영의 영역에서 불쌍한 상태에 거하게 되면, 혼은 당연히 심하게 우울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은 혼의 자유의지였고, 혼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불쌍한 상태를 만들었고, 혼은 이제 이런 상태를 견디거나 자유의지로 다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즉 혼은 저세상에서 내 사랑과 긍휼을 얻기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이로써 혼이 높은 곳에 도달해, 비록 영원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될 지라도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혼의 의지가 유일하게 영원 가운데 혼의 운명을 정한다. 혼의 의지가 혼이 깨어나게 하고 또한 혼의 의지가 또한 영적인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집행 유예 종료. 심한 고통.

B.D. No. 2369

1942년 6월 15일

**○**혜의 시간이 곧 지나가고, 인류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 더 깊숙이 사탄의 그물로 들어가, 서로를 죽이고, 사랑이 전혀 없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이런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물질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들로부터 이 땅의 재물을 취하고, 모든 종류의 환난을 통해 생각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도움을 구해야 할 위치에 처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치료의 수단이 실패하고, 영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사람들을 때리게 될 날이 멀리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은 아직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고통을 견뎌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은 자취 없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혼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 강요할 수 없다. 고난이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면, 더 이상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는 심판의 날에 주님의 능력을 느끼는 자들에게 속하게 된다. 다시 말해 그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결정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혼이 수십만 년에 걸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시 견뎌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아는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선한 쪽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은 아주 커서,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사랑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웃 사람을 도우려는 자연적인 느낌이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랑을 행할 수 있다면, 그는 이런 위험 앞에 깨어나고, 사랑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모든 사랑의 불씨를 꺼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발산되는 영역의 밖에 있다. 이런 일은 영적인 입자들이 다시 가장 굳은 물질로 굳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 땅의 과정이 이제 묶임을 받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 다시 시작이 된다. 이 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땅에 닥친다면, 이런 일은 아직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들에게 이 땅의 과정을 다시 한번 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긍휼의 역사가 긍휼의 역사로 인식되지 못하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거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이 먼 가운데 영적인 연관 관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주어진다. 그러므로 주님은 선지자들을 일깨우고,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이전에 예고하게 한다.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고, 이 때가 임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훈계하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 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저하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 그들이 마지막 훈계와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들이 무저갱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방법이 없다.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가 다가오는 고난의 원인이고, 하나님 편에서 고난을 멈추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에 그들이 단지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은혜의 마지막 시간이 시작될 때, 이 땅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이 시작될 때, 훈계와 경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영원에 영원한 기간 동안에 걸쳐 완전하게 무기력 한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견뎌야 하는 정죄를 받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믿음의 힘은 은혜이지만 의지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B.D. No. 4966

1950년 9월 12일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거의 견딜 수 없게 여기는 이 땅의 고난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느낄 수 있다. 심장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붙잡힘을 받고 그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의롭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지식은 증가할 것이고, 이런 지식이 유일하게 이미 은혜이고, 이 은혜가 사람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저항할 힘을 얻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함을 느끼지 않고, 고난으로부터 곧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의식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강한 믿음은 은혜이다. 왜냐하면 사람 자신이 종말의 때의 큰 고난 가운데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자신에 대한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향한 의지를 보고 사람이 연약한 곳에서 돕는다. 그는 사람의 심장 안에 흔들리지 않고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 안에 믿음을 주는 일이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믿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믿음의 힘은 실제 은혜이지만 그러나 단지 믿기를 원하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

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역사한다. 모든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의지를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이런 의지를 알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이 아직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어려운 때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모든 선한 사람들은 진정한 마귀가 된 이웃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확신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 단지 영으로 진리로 부르는 부름으로 충분하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쉽게 간다. 왜냐면 그들이 더 이상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를 추구하는 일이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연약해질 수 없고, 그는 알고 있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의 심장은 하나님 안의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평안에 들어가게 된다. 왜냐면 그가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옆에 아버지를 끊임없이 느끼고, 아버지의 힘과 권세를 끊임없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때가 종말을 향해 다가 가고 있고, 매일이 그에게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날이 될 수 있음을 안다. 그는 자신이 기적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구름타고 재림하는 일이 이 땅의 고난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믿는 심장으로 이 날을 기다린다. 왜냐면 그의 믿음이 이제 그가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머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대적자의 역사에 대항해 강한 은혜를 사용한다.

B.D. No. 7821

1961년 2월 9일

**종**말의 때에 대적자의 역사는 강하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 스스로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대적자의 추종자인 아직 구속이 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 모든 영적인 존재가 스스로 그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다. 대적자는 혼이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그의 혼에게 자신의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대적자에게 저항하면, 대적자는 그 사람에 대한 권세를 갖지 못한다. 왜냐면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대적자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뜻과는 다르게 대적자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너희가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허용했고 악한 역사를 행하게 허용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적자에게 그의 권세를 강하게 한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항상 더 많이 일어난다. 너희는 그의 영향에 대항하지 않는다. 너희는 항상 그의 재촉을 따를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권세를 강하게 한다. 그는 이제 이 권세를 항상 더욱 사람

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하게 재촉하면서 해가 되게 사용한다.

사람들은 이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를 대적하기 위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는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르짖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저항하기 위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악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저항할 것이다.

만약에 그가 한번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시도를 했으면, 그는 항상 더욱 하나님께 향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한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단지 대적자의 술수를 깨닫고 이를 막으려고 한다. 대적자는 더 강한 힘을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빠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는 일이 더 크게 일어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왜냐면 사람들이 모든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일이 대적자의 마지막 목표이기 때문이다. 종말의 때에 대적자의 강력해진 역사는 하나님이 대적자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나 심하게 공격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람들에게 더 강한 은혜를 부여하는 원인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진다.

그들에게 저항할 능력이 제공 된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 편에 함께 하여 그들은 패배할 필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새롭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한다. 그는 종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말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한 능력을 제공한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단지 진지하게 원하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의 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의지가 유일하게 대적자의 권세를 끊거나 대적자의 권세를 강하게 할 수 있고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 그러나 사람은 저항하기 위한 능력을 요구해야만 한다. 이런 요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길 구해야만 하고 연결 된 가운데 머물러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그 자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를 믿으면, 너희는 계속하여 능력을 구할 것이고 절대로 대적자의 멸망시키는 의지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자를 극복했기 때문에 대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대적자는 너희를 떠나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대적자는 너희를 되돌릴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잃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 편에서 싸우고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대적자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을 피하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사람에게 맘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전에 항상 영적인 가르침을 영적인 가르침의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즉 가르침으로 인해 얻은 지식을 항상 전해야만 한다. 이로써 이웃 사람들도 위로부터 한 사람에게 제공된 것의 축복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은혜는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그의 혼은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영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가 절대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식을 모든 방향으로 전해야만 하고, 전파해야만 하고, 모든 문으로 옮겨 제공해야만 한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을 받고, 그의 말을 듣는 일은 자유이다. 왜냐면 모든 은혜의 선물은 자유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시도를 하면, 많은 문이 열리고, 많은 심장들이 자원하여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에 동참할 수 있고 혼들이 성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일할 장소를 찾을 것이고, 그는 자신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은혜의 선물에 합당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곳에서 말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론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여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직접 들을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생명수는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사람을 쾌활하게 하고 상쾌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의 과제를 깨닫고, 이 과제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이 과제를 이 땅의 일보다 우선에 뒀야 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인도받을 것을 믿고, 너희의 영적 역사에 필요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진행이 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자신이 함께 동역해야 할 사람들을 또는 서로 성장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을 믿고, 우연으로 여기지 말라.

모든 일은 영원으로부터 정해진, 선한 일로 깨달은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아직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영적인 존재가 유일한 실체이다. 반면에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일은 단지 하나님이 원하면, 사라지는 겉모양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영적인 빛을 비추지 않고 생명으로 깨우지 않는 어떤 것도 보여주거나 만들 수 없다. 영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정함을 받은 사람의 길은 항상 단지 목표로 인도할 것이다. 이 목표는 오류에 빠진 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웃 사람에게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고, 자신의 이 땅의 과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돕는 의미로 활동하는 사람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의롭고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현재에 그리고 언젠가 영의 나라에서 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는 힘이 부족함을 의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을 약한 피조물로 깨닫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는 사람에게 그의 연약함을 특별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희귀하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가장 숭고하고 온전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낮음과 연약함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이 땅의 삶을 위한 힘을, 높이 성장하기 위한 힘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무기력한 피조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세상적인 성공이든, 영적인 성공이든,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굳게 확신한다. 그는 대부분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 추구하고, 영적인 추구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영적인 성공을 단지 은혜의 선물로만 여기게 된다면, 이는 그에게 바로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가 자신의 혼의 성장을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는 지, 다시 말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지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로 결정했는 지에,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깊은 믿음이 없다. 그러므로 그가 연약하다는 가르침을 그에게 주면, 그는 이런 가르침을 믿을 수 없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개입하지 않고, 자신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올바른 믿음은 사람들이 모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드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이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다시 말해 요구해야 할 것을, 기다린다. 이런 태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이런 은혜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그가 힘을 주시기를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에게 의지가 약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낫다. 이로써 그가 이런 약점을 고치려고 하게 하고, 이제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는 기도에 힘쓰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힘은 하나님에 의해 그에게 공급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지가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동인이 되어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는 영원한 신성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다.

아멘

나에게 이끌리는 사람의 기도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나에게 도피하는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의 간구는 어린아이와 같고, 신뢰를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의 불행을 줄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도 또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은 단지 너희의 혼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로써 너희가 나를 찾게 하고, 너희의 심장이 나에게 부르짖게 한다. 왜냐하면 단지 고통만이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도움이 올 때까지 인내하라.

사람이 높은 곳에 도달하는 일은 절대로 사람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는 일을 중단하게 해서 안 된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의 행동과 처신을 통해, 자신의 높이 성장하기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통해 증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이런 의지가 그에게 이제 다시 혼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이로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다른 사람은 굶주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게 제공이 된다. 아무도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요청을 받지 않고는 인간에게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일한 공로는 그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역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준다고 여기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 일은 가장 큰 불의한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 택하신 사람들에게 속합니까?" 라는 이해가 가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견해는 인간이 혼에 대한 일을 소홀히 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유를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허락할 때까지, 평안하게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만 한다는 반대하는 의견을 인정해야만 하게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끔찍한 영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함과 공활을 의심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쓸모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일은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자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할 수 있다.

더 긴밀하게 구할수록, 하나님은 이 땅의 자녀에게 더욱 풍성하게 공급하고, 이 땅의 자녀는 이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방식은 실제로 더 이상 그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지금처럼 그가 행하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된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기도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성공적으로 높은 곳을 향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

B.D. No. 3714

1946년 3월 15일

**너**희가 힘과 은혜를 받기 위해 나에게 긴밀하게 구하면, 은혜와 힘이 육체보다 혼에 더 많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때로는 즉각적인 도움으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측량  
할 수 없게 도움을 받는다. 인간은 인간으로써 아직 환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은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는다. 이로써 사람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도 침착하고 평등한 상태를 유지  
한다. 왜냐면 그의 혼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혼이 육체의 고난은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서 육체의 고난을 거두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부과한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는 나의 힘을 받기를 갈망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불행 자체가 불행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  
라, 사람의 상태가 정한다. 그가 연약하다면, 그는 모든 고난을 두 배나 어렵게 느낀다.

그러나 나의 은혜와 힘은 항상 너희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고, 너희가 나의 은혜와 힘을 사용  
한다면, 가장 어려운 이 땅의 삶도 너희에게 견딜 수 있고, 너희의 혼을 위해 항상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면 혼의 곁형체가 서서히 분해가 되어야 하고, 나의 힘과 은혜가 분해하는 일을 일  
으키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이 나에게 속하게 되면, 그가 힘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나와 연결이 되면, 나 자신이 그에게 힘을 주는 형태로 나 자신을 알릴 수 있고, 그가 물질을  
향한 갈망을 줄이는 같은 정도로, 내가 그의 혼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의 은  
혜의 힘이 혼을 혼 안의 영에게 향하도록 재촉하고, 물질적인 재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  
이다.

나의 은혜와 힘이 역사하면, 사람을 내적으로 강하게 하고, 그를 외부 세계에서 분리시키고,  
그가 자신 안의 영과 접촉을 구하게 하고, 만일 그가 이 땅의 위험을 나의 지원과 은혜와 힘을  
받음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영적인 성장에 도달하게 한다. 그런 요청은 절대로 이행되  
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 않고, 이 요청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절대로 빈손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또한 이 땅의 고난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도  
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더 강력한 지 항상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고난은 한편으로 사  
람이 자신의 약점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향하게 하는 일을 목표  
로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나를 긴밀하게 부른 후에 분명하게 도움이 온다면, 이  
땅의 고난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를 추구하는 혼은 항상 몸의 고통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 왜냐면 혼이 항상 나에게 도피하고, 모든 긴밀한 기도가 혼에게 힘과 은혜를 주고, 이제 혼의 성숙한 상태에 따라, 나의 지혜와 나의 사랑이 목적에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육체가 또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거나 또는 단지 혼이 느낄 수 있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에게 힘을 구하는 사람에게 나는 힘을 준다. 왜냐면 내가 영적인 재물을 구하는 모든 요청을 들어주고, 세상적인 도움이 너희에게 축복이 된다면, 세상적인 도움에 대한 요청에도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나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사랑과 은혜에 너희 자신을 맡긴다면, 너희가 나의 힘을 요청하기 원하고, 이런 소원을 나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증명한다면, 너희는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와 너희의 약점과 의심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를 기도를 통해 나에게 아뢰기를 원한다. 이로써 필요와 약점과 의심이 나의 사랑을 통해, 나의 힘과 은혜의 공급을 통해, 고쳐질 때, 너희가 알게 되고, 이로써 너희가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내가 도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나는 고난을 통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고난도 너희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에게 고난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통해 모든 힘과 은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너희를 돌본다. 너희가 의심없이 믿는다면, 큰 고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언제든지 나의 은혜와 힘으로 큰 고난을 극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과 어두움.

B.D. No. 4956

1950년 8월 25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생각해보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혼을 얻기 위해 씨름하고, 혼이 멸망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은혜로 항상 또 다시 혼에게 접근하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들 혼자서는 자신을 구원하는 목표를 진지하게 추구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하는 목표를 진지하게 추구하기 위해 힘이 부족한 혼에게 내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준다. 혼은 단지 저항하지 않고 내 은혜의 효력에 자신을 맡기면 되고, 단지 내 사랑이 자신을 이끌게 하면 된다. 즉 혼이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혼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먼 가운데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은혜를 또한 거부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어두운 상태를 고려한다. 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저주와 동일한 사탄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멀어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눈이 멀었고 무지한 사람에게 공흠을 베푼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계속하여 그들을 만난다. 그들은 실제 나와 내 은혜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은혜를 선물로 깨달았지만 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 사랑에 대항하는 죄를 짓고 공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비록 내가 항상 또 다시 그에게 다가 가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더 힘들게 다가간다. 왜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수단으로 그의 심장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그런 수단 안에서 나를 깨닫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고난도 또한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면 사람이 혼자서 길을 찾지 못하거나 갈 수 없다면, 고난이 사람을 나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즉 선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을 거부하면, 그에게 내 선물이 두 번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거절한 은혜의 선물에 따라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는 또한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에게 제공한 빛을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꺼버렸고, 어둠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빛을 땅으로 비춘다. 광선에 영향을 받게 하는 사람의 내면은 깨우침을 받고 영적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빛의 광선은 내가 이 땅에 주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내 지혜는 진실로 누가 이 빛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절대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빛을 자신 안으로 영접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빛이 되도록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깨닫기 원한다면, 그가 이 빛을 하늘의 빛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일은 은혜의 선물이 주는 역사이다. 이런 역사가 나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내 사랑이 그에게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한 또는 잘못 사용한 자신의 의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때, 무지를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신에 내 사랑과 공흠을 대한 혼의 저항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나의 대적자이기 속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의 대적자도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 사람에게 역사하고 사람이 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도록 유도한다.

사람은 자유하고, 혼의 영적 성장에 관한 일에서 위로나 아래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은혜의 선물을 갈망하는 손을 펼치도록 그는 절대로 강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에게 은혜의 선물이 다시 주어질 것인지는 의심스럽게 된다. 왜냐면 단지 크게 후회하는 가운데 나에게 진심으로 은혜의 선물을 구하는 혼이 다시 빛 발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고, 모든 빛을 피할 것이다. 왜냐면 어둠의 권세자가 그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가 저항하지 않고 없이 어둠의 권세자의 권세와 힘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아멘

**진**실로 너희는 단지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너희가 내 사랑을 거절하고 나를 떠났을 때 나를 대적해 죄를 짓고 깊은 곳으로 타락하였을 때 너희 모두가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라. 나를 떠나 타락한 일은 한번 일어났다.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는 이 땅에 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한때 나를 떠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들이 나와 내 사랑을 거절했다. 이런 죄는 너희에게 큰 짐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해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너희 원죄를 용서했다. 그러나 너희는 원래 내 사랑으로 생성되었고 이 사랑은 너희를 더 이상 떠나지 않는다. 이 사랑은 자신을 너희에게 항상 선물하고 너희들 다시 자신에게 끌어 드리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너희의 큰 죄짐 때문에 너희에게 행해지는 모든 사랑의 역사는 은혜이고 너희가 벌어들이지 않은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되게 하기 위해 주는 선물이다.

단지 은혜를 통해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왜냐면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너희 스스로 빠져들어난 깊은 곳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너희에게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 줘야만 한다. 나는 너희를 계속하여 높은 곳으로 향해 끌어 올려야만 한다. 내가 벌을 줘야 하는 곳에 많은 은혜를 준다.

비록 너희 스스로 벌어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려야 할 곳에 나는 나 자신을 선물한다. 이런 일들은 은혜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너희는 이런 지원을 받을 권한이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모든 것을 소용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로 너희에게 계속하여 준다. 나는 너희의 큰 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너희에게 내 사랑을 부여 준다. 단지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없다. 왜냐면 이 구원은 너의 스스로 내 뜻을 성취시킴으로써 너희에게 나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는 내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능력을 부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은혜의 선물을 자유의지로 영접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왜냐면 은혜의 분량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 은혜를 영접하게 강요받지 않고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가 결정을 할 것이다. 너희의 자유의지를 내가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것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온전한 것만을 창조할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함에 자유지가 속해 있는 내 온전함에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온전함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전적으로 반대로 바꾸었기 때문에 단지 내 중단되지 않는 사랑 만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활용하지는 않는 은혜를 너희에게 부여 줌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만약에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의 구원의 시점과 구원의 정도를 정한다고 믿으면, 너희는 잘못 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올 때가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는 사랑에 너희가 나에게 사랑으로 응답할 때가 너희가 너희의 성품을 스스로 내 사랑이 너희에게 흘러 갈 수 있게 원래 너희의 성품으로 바꾸는 것이 나에게서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나에게서는 항상 너희를 한방에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나는 사랑이나 지혜나 축복을 볼 수 없다. 내 목표는 올바른, 사랑으로 아버지께 다가오는 나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심장을 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길 갈망하는 자녀이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지 않았으면, 나 자신이 나를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선물해 주지 않았으면, 너희가 한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최종 목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은혜를 자유의지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의 정도와 성장의 정도는 아주 다양하다. 비록 은혜의 분량이 줄어 들지 않았을 지라도 은혜를 영접하는 정도에 따라 이 은혜가 너희에게 역사한다. 내 사랑의 도움이 없이는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에 영원 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갈 능력이 전혀 없다.

너희가 나에게 그리고 내 사랑에 저항을 하는 한 너희는 내 은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저주한다. 왜냐면 너희가 스스로 축복되게 할지 축복 때지 못하게 할지 너희의 운명을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내 은혜와 사랑에 붙잡힘 받게 만들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며 이제 스스로 내 사랑의 응답할 때 영원에 영원까지 우리를 연합시키게 되고 너희는 비로소 최종적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아멘

은혜를 활용하는 일.

B.D. No. 7230

1958년 12월 14일

**너**희는 내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내 말대로 충실하게 성취할, 내 약속의 말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는 내 도움이 없이는 무기력하고 버려진다. 왜냐면 너희는 무능력하고 빛이 없이 길 가운데 정지하고 너희에게 성장을 위한 능력이 없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길을 깨닫지 못하고 위로 성장하기 위한 능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은 단지 오르막길이며 급경사로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길은 너희가 도움이 없이 가려고 하면, 가기에 힘든 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나에게 귀환을 간절히 원하게 때문에 너희에게 항상 도움이 제공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준다. 너희는 이 은혜를 단지 힘들이지 않고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기 위해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돕는 일이 단지 가능한 곳에서 나는 항상 돕는다. 나는 너희에게 도움을 영접하라는 요구 외에는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 도움을 제공한다. 왜냐면 도움을 용접하는 일은

너희의 자유의지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나에게 도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손이 너희에게 제공되면, 내 손을 잡아야 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는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새롭게 내 은혜를 선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가 간다. 너희는 매일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거나 또는 읽을 수 있다. 너희는 나로부터 직접 내 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말씀 안의 나에게서 들으려는 너희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말씀이 너희 안에 들릴 수 있게 귀와 심장을 여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로써 내 말씀인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내 말씀은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다. 나는 내 말을 통해 이제 너희에게 빛을 전해주려고 한다.

너희 안에 빛을 주려면, 말씀이 너희 영을 밝게 해주려면, 너희는 말씀이 심장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만 하고 이성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말씀이 너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해야만 한다. 너희는 은혜의 선물을 다시 올바르게 활용한다. 너희는 계속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 전에 심장과 이성이 입장을 정한 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이다. 너희는 다시 은혜의 선물이 역사하게 만든 것이다. 왜냐면 내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항상 너희 안에 밝은 빛이 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 타오르는 불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너희의 귀환의 길을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모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왜냐면 모든 은혜는 나 자신으로부터 너희에게 제공되는 이로써 너희가 힘들이지 않고 너희의 귀환을 간절히 원하는 나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게 하는 도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이 내 자녀들을 다시 얻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해할 만한 일이다.

내가 이 일을 내 피조물들인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은혜이다. 왜냐면 이는 너희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고 너희가 벌어드리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제공되는 순전한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은혜는 너희가 요구할 수 없는 도움을 받는 일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고 내 너희를 향한 모든 사랑을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돕는다. 왜냐면 내 사랑의 끝이 없고 너희를 버림받은 상태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가 실제 자유의지로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가 다시 자유의지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귀환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다시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까지 너희가 그에게 가기를 원할 때까지 내 지속적인 사랑의 선물로 양적으로 수적으로 제한이 없는 은혜를 통해 이제 너희의 귀환이 보장이 될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다.

아멘